

 <div>금융위원회</div>		<div>보도설명</div>			
 <div>서민금융진흥원</div>					
보도		배포 시		배포	2022.2.11.(금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(02-2100-2610)	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614)	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김 진 휘(02-2128-8080)			박 장 구 부장 (02-2128-8085)	

제 목 : 햇살론카드는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발급되고 있고,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(매일경제 2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매일경제는 2.11일 「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 ... 햇살론카드 ‘상품권깡’ 기승」 제목의 기사에서
- “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햇살론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고 있으며,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, 부실이 커지면 언제 카드사들에 부담을 떠넘길지 모른다”고 보도 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①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‘햇살론카드’는 7개 카드사*에서 발급가능하고 카드사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.

* 국민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

※ 현재 하나, 현대카드사 발급 '햇살론카드'의 경우,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.

② 햇살론카드의 경우,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에 따라 발급여부와 금액한도(최대한도는 200만원)를 결정하고 있고,

○ 카드 특성상 한달이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, 상환부담과 연체시의 불이익* 등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상품권깡 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.

* 연체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, 연체시 추가적인 대출 어려움 등

- 다만, 서민금융진흥원, 카드사들과 함께 상품권깡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.

③ 또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,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(햇살론15, 햇살론유스 등)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,

○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, 서민금융진흥원 앱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④ 햇살론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100% 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부실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